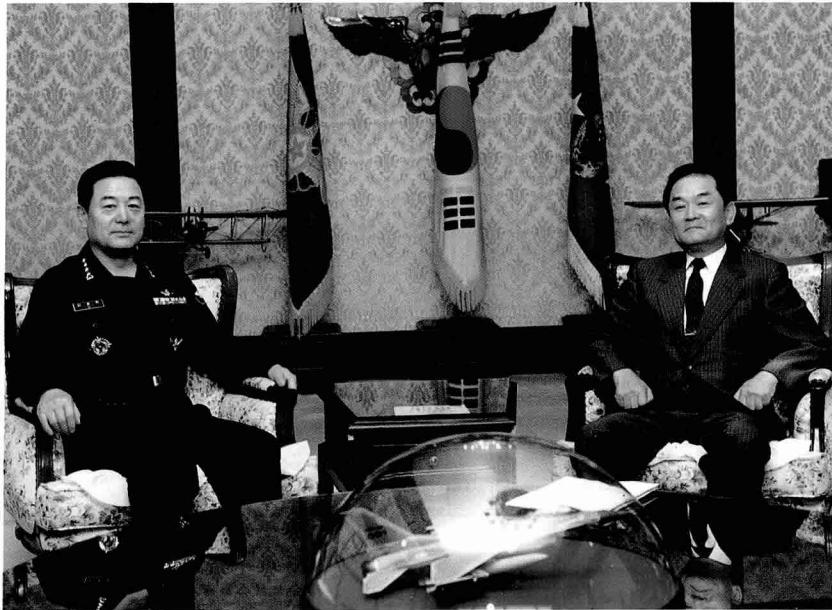


소요軍과 방산업계간 협력 증진 방안 협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安秉吉 부회장 각군 총장 방문



사용자인 軍과 공급자인 방산업계 현 안사항에 대한 직접 대화를 통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安秉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5월 6일 각군 참모총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安 부회장은 “총포, 탄약, 화생방 등 방산제품 생산업체는 물량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매우 저조하여 회사존립과 생산기반이 와해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軍은 사용자로서 해당전력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유사시에도 능력을 발휘하고 중요시설이 유지, 보존될 수 있는 차원에서 소요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애로사항으로 “진행사업이 종료된 후 생산공백기간이 생기는 점을 감안 기획보된 시설, 기술 및 인력유휴방지를 위해 후속물량 창출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사진은 李光學 공군참모총장 (左)과 安부회장)

國科研, 「방산연구 개발 간담회」 개최

— 효율적 방산 연구개발 발전방향 모색 위해

국방 과학연구소(소장 裴文漢)는 5월 21일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으로 효율적인 방산연구개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방산연구개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과연에서 裴소장을 비롯한 각 부소장 및 본부장과, 방산업계측에서 安秉吉 방진회 상근부회장 등 업체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安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위산업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해외도입무기체계보다 국내 독자개발 무기를 구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핵심부품까지 국내 개발하여 수출계약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방위산업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과연이 기술, 자료 등 소유한 모든 것을 방산업체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연구소 현황 소개와 지난해 토의된 내용의 추진 실태 보고, 간담회, 만찬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연구개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연구개발 활동분야별 개선방향,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간 협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업체측에서는 인수기술을 방산제품에 접목하는데 부품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며 규격제정시 사용규격과 MIL-SPEC의 융통성있는 적용과, 국과연 기술과 시설을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 줄 것, 업체 제출 소요제안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국과연에서 종합 검토하여 국방 중·장기 획득개발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96 아시아 방산전시회에 한국관 개설

— 동남아 무기시장 겨냥 각국 수주경쟁 치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번 '96 DSA 전시회에 현대정공 등 6개 회원사와 함께 참가하여 국내방위산업 최초로 한국관을 설치,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한국 방위산업진흥회는 4월 23일부터 26일 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무역관(PWTC)에서 개최된 '96 Defense Services Asia 전시회에 방위산업 최초로 한국관을 설치하여 우리 방산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활발한 수출상담 활동을 전개하였다.

격년으로 열리는 DSA전시회는 '88년 이래 4회에 걸친 성공적인 개최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방산전시회로 부상하였으며, 올해에는 세계 43개국에서 626개 우수 방산업체에서 출품했으며 각국의 국방관계자도 대거 참여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뜨거운 수주전을 벌였다.

세계적인 국방비 감축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비증강 및 군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어 세계 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방산물자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번 전시회 출품으로 우리 방산업체의 국제마케팅 활동 전개 및 수출증대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정공(K-1전차, 구난전차, 교량전차), 대우중공업(화생방

정찰 장갑차, 90mm 포탑 장갑차), 한화(탄약류, 경비정 등), 한국중공업(리본부교 모형), LG정밀(각종 통신장비류), 협진정밀(신관류 등)이 참가하였다.



개회식에 각국 귀빈 약 1천여명이 참석, 성대하게 열렸다



방진회 초청 리셉션에는 해외 방산 관련 주요인사 등 12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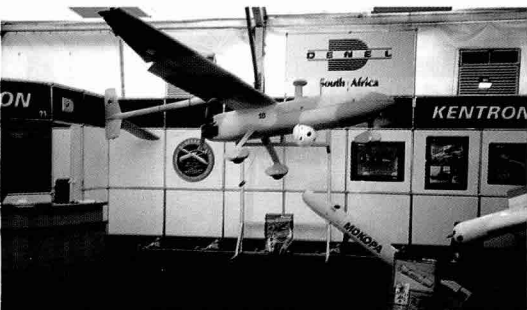
우수한 상용차량의 생산업체인 독일의 Mercedes-Benz社は 여러 용도의 전술 군용차량 및 수송 차량을 전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Lockheed社は C-130 Hercules와 Hydra-70 2.75 Rocket System 모형과 각종 레이더 모형을 전시하였다.



미국의 Litton社は 각종 夜視장비 및 레이저 광학장비를 전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남아공화국은 DENEL, REUTECH를 중심으로 다수업체가 참여하여 HALL 6 전체를 자국관으로 꾸며 전시하였다. 사진은 LARK, Seeker 무인항공기 감시체계 모형 및 SAHV 지대공 미사일 모형을 전시한 DENEL 그룹 산하 KENTRON社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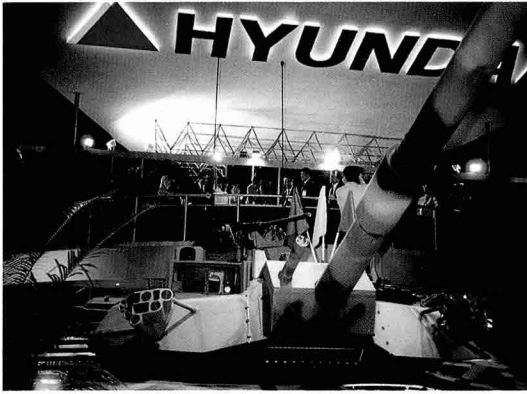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정부가 동남아시아 최강의 기갑부대를 창설한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총 210대의 전차를 수입키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전차수주전은 이번 DSA 전시회 기간중 최고조를 이루었다.

현대정공과 수주 경쟁중에 있는 폴란드의 ZM Bumar Labedy社(사진 위, T-72 MBT 전시), 영국의 Vickers Defense Systems社(사진 아래, Vickers MARK 3 전시) 등 3개사의 전시가 HALL 1에서 있어 말레이시아 고위층을 비롯한 각국의 참관인들의 관심을 촉발했고 3社의 수주전도 치열했다.



프랑스 Aerospatiale은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인 ERYX, 중거리 대전차 무기인 MILAN, 장거리 대전차 무기인 HOT모형, EXOCET, EUROCOPTER, ROLAND 모형 등을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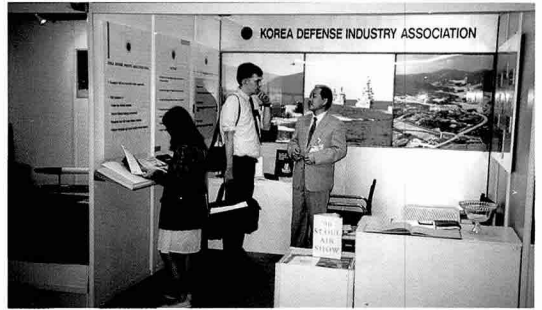
현대정공은 K1 주력전차, 구난전차, 교량전차 및 전차엔진 등 다수를 전시, 단일업체로서는 DSA '96 최대전시장을 운영하였으며, 전장대 및 VIP룸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대우중공업은 화생방 정찰장갑차와 90mm 포탑장갑차 등 실물과 각종 장갑차 모형, 차세대 훈련기 및 각종 함정류 모형을 전시하였다.



LG정밀은 PRC-999(수출형)를 비롯한 통신장비와 지뢰탐지기, 전차병 헬멧 및 전차, 장갑차 궤도실물을 전시하고, 자사장비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산물자 종합카다로그를 비롯하여 국방조달 안내책자와 (주)풍산 등 9개 불참 회사 카다로그 및 '96 Seoul Air Show 소개책자를 비치하여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국중공업은 Ribbon Bridge System을 중심으로 모형 및 판넬을 전시하고, 리본부교를 활용한 각종 작전상황 VTR을 상영하였다.



협진정밀은 대구경에서 소구경에 이르는 각종 신관류와 자사생산 정밀 의료기기를 전시하였다.



(주)한화는 2.75인치 로켓탄과 K-4 기관총 및 40mm 유탄, 경비정 모형 등을 전시하였으며, K-4 기관총 성능시험 VTR을 방영하여 관심을 끌었다.